

삼성 잡은 KIA, 뒷심 발휘 전반기 1위 확정



롯데 상대 역전패·키움에 18안타 맞으며 최악의 한주 비로 휴식 후 삼성 상대 방망이·철벽 마운드 살아나

최악의 위기 상황을 딛고 KIA 타이거즈가 '1위'에서 전반기 휴식을 맞는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KBO 2024 시즌이 짧은 올스타브레이크와 함께 잠시 쉬어간다.

올스타전에 앞서 진행되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는 KIA의 '우승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였다. 총체적 난국 속 대구를 찾았던 KIA는 우려와 달리 승률을 높이며 1위 자리를 지켰다.

KIA는 지난주 시즌 최악의 순간들을 경험했다. 시즌 첫 스윙패의 기억을 안고 있는 사직에서 다시 한번 KIA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6월 25일 4회 14-1을 만들었던 KIA는 이날 5시간 20분의 승부 끝에 연장 12회 15-15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후 두 경기에서도 뒷심 싸움에서 밀리면서 모두 역전패를 당했다.

이와 함께 올 시즌 롯데와 3승 1무 7패가 됐다. 후유증이 남았다. 사직에서 돌아와 홈에서 치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도 KIA는 장단 18안타를 얻어맞으면서 6-17 대패를 기록했다.

마무리 정해영의 이탈과 맞물려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KIA의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

하늘이 KIA를 외면하지는 않았다. 반가운 비가 연이어 내리면서 중격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KIA는 마운드를 재충전해 전반기 마지막 3연전을 치를 수 있게 됐다.

KIA의 승리 본능이 살아난 게 반갑다.

지난 2일 경기에서 KIA는 끝까지 가는 승부를 벌이면서 9회 삼성 마무리 오승환을 공략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리고 연장으로 끌고 간 승부,

10회 5점을 뺏으면서 빅이닝을 장식했다.

자신감을 깨운 KIA는 3일에도 잠시 리드는 내렸지만 승부를 뒤집고, 2점을 지키면서 워닝시리즈를 확보했다.

전상현이 이를 연속 위기 상황에 등판해 흔들리던 불펜의 중심을 잡아줬다. 특히 3일 경기에서는 8회 2사 만루의 위기에 출격해, 삼성의 추격을 막아냈다.

덕분에 KIA는 앞선 대결에서 2승 3패로 뒤져있던 삼성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면서 여유롭게 올스타 휴식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통해 삼성 열세를 지우는데 성공한 KIA는 후반기에 SSG 랜더스와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상대전적 바투기에 나서게 된다.

1위를 달리면서 패보다 승을 많이 쌓은 KIA지만 SSG와 롯데를 상대로는 적자를 기록했다.

SSG전 성적은 3승 5패다. 롯데전 성적은 3승 1무 7패로 더 좋지 않다.

전반기 KIA가 가장 강했던 상대는 NC 다이노스다.

KIA는 올 시즌 NC와 9번 만나 8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특히 NC 안방에서 연달아 스윙승을 기록하면서 '장원 강세'를 보였다.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도 6승 2패를 기록, +4를 만들었다. 앞선 경기에서는 대패를 당했지만 키움에도 4승 1패로 앞섰다. LG 트윈스와의 6승 2패, KT 위즈와는 7승 5패의 전적을 냈다. 두산 베어스와의 6승 1무 5패의 호락지세를 보였다.

한편 1위로 전반기를 마감한 KIA는 9일부터 잠실 원정에 나서 LG를 상대로 후반기 첫 일정을 소화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위기의 상황에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를 위해 대구로 떠났던 KIA가 전상현의 활약을 앞세워 승률을 높이고 1위 자리에서 올스타전 휴식기를 보낸다.

<KIA 타이거즈 제공>

e스포츠 최강자 뽑는다...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광주대표선발전

27일 광주e스포츠경기장

전국 e스포츠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지역 예선이 펼쳐진다.

오는 27일 광주e스포츠경기장에서 '제16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KeG) 광주대표선발전'이 열린다.

'KeG 광주대표선발전'은 리그 오브 레전드(5인팀전)와 FC 온라인(개인전) 총 2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12세 이상의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7일 오프라인 본선에 앞서 20일 온라인 예선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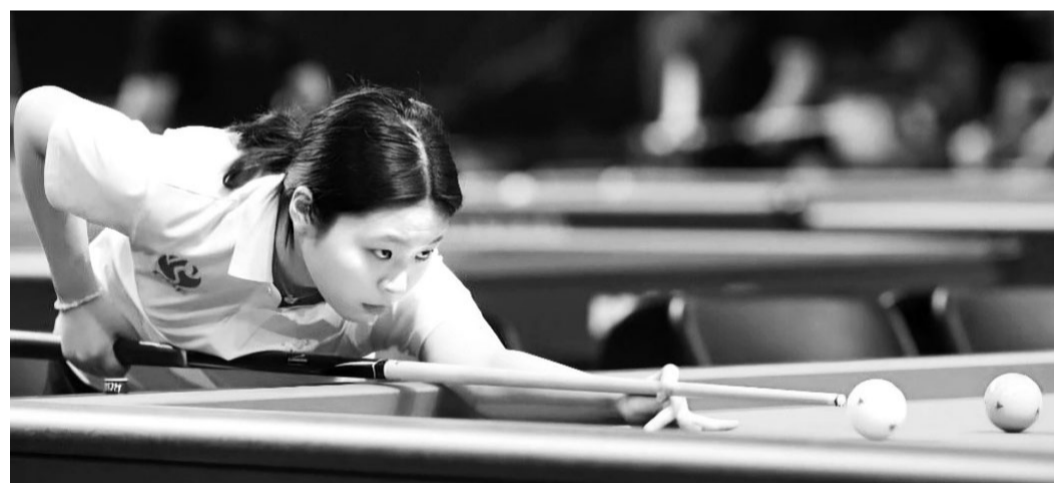
대표 선발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1위 팀, FC 온라인 1·2위에 오른 선수는 시 대표 자격을 얻는다. 리그 오브 레전드 1위 팀과 FC 온라인 1위 선수에게는 광주시장상도 수여된다.

시 대표로 선발된 이들은 8월 17-18일 충남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대회 상금은 리그 오브 레전드 우승 팀 30만원, 준우승 팀 20만원이다, FC 온라인 우승자에게는 총 20만원(현금 10만원과 FC캐시 10만원), 준우승자에게는 총 10만원(현금 5만원과 FC캐시 5만원)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14일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 e스포츠경기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광주 빛고을체육관에서 '제3회 광주시당구연맹 박종규회장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대회 경기 모습.

<광주시당구연맹 제공>

광주·전남 씨름단, 춘천소양강배서 메달 5개 획득

광주·전남 씨름 선수단이 '제10회 춘천소양강배 전국 장사씨름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은 대학부에서 은메달 1개, 고등부에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영암 세한대의 장래환(3년)은 대학부 용장급(90kg이하) 2위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래환은 반승훈(목원대)과의 준결승에서 2-1 역전승을 거둔 뒤 결승전에서 만난 김재원(경기대)에 0-2로 지면서 2위를 기록했다.

여수공업고 권민성·염태산(이상 3년), 광승현(2년)은 각각 고등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권민성은 용장급(85kg 이하), 염태산은 용사급(90kg이하), 광승현은 장사급(135kg 이하)에서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 용봉중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합작했다. 용봉중은 경기 광주중, 경북 점촌중을 차례로 꺾



세한대 장래환이 은메달을 목에 걸고 세한대 씨름 선수단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고 준결승에 진출한 뒤 서울 방학중에 4-2승리를 거두고 결승행을 확정했다. 이어 결승에서 경남 신어중을 상대로 1-4로 패하며 준우승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춘천 한림대 레크리에이션센터에서 열렸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국내 최대 '당구 동호인 축제' 광주서 열린다

전국3쿠션 당구대회...6~7일 광주빛고을체육관

광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당구 동호인 축제'가 열린다.

'제3회 광주시당구연맹 회장배 전국3쿠션 당구대회'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전국 당구 동호인 1024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연맹 선수와 프로당구협회(PBA) 선수를 제외한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만 출전 가능하다.

그동안 광주에서는 체육관 당구대회가 열린 적이 없다.

관내 당구클럽에서 개최된 앞선 1,2회 대회와 달리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3쿠션 개인전 경기로 치러진다.

대회 참가자들은 관내 18곳의 당구클럽에서 예선을 치르고, 주경기장인 빛고을체육관에서 본선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파격적인 상금 규모로도 화제를 모았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현금 10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MP유, 준우승자에게는 현금 300만원과 350만원 상당의 MP유가 주어진다. 이어 공동 3위 2명에게는 현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회장은 "시 최초로 체육관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성원에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당구 종목 활성화와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민경 기자 minky@

즐거움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II <Romantic>

일시 : 2024-07-18(목)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광주시립오페라단 제15회 정기공연 | 콘서트 오페라 **가족 오페라 <신데렐라>**

일시 : 2024-07-26(금) 19:30

2024-07-27(토) 15:00, 19:30

장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2

문의 : 062-412-2502